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2. 10. 25.

발행인 | 박혜경

홈페이지 | www.cbwf.re.kr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및 개선과제

주경미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목차

1. 지역성평등지수 개요
2. 지역성평등지수로 본 충북 성평등 수준
3.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과 신규 지표
4.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 지표 관리 방향

1. 지역성평등지수 개요

1) 지역성평등지수란?*

- **정의** :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
- **목적**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부터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 점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 성평등지표는 사회의 성별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격차지표(gender gap indicator)를 주로 활용하며,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여성특수지표(women-specific indicator)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성평등지표로 측정하고 성평등지수(100점 만점에 몇 점)로 표현한다. 성평등지표는 성평등과의 연관성, 대표성, 반응성, 정책유효성, 발전지향성, 자료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지표를 선정하고 주기적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여성가족부가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 승인통계 중에 성평등과 관련된 분야별 통계를 추출하여 성평등지표로 삼고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성평등지수로 제시하고 있다.

2) 특징

- 시도별 남녀간 격차를 측정해 지수를 산출. 100점 만점으로 성비가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 방법으로 산정
- 시도별 성과지표를 측정해 등급을 산출. 시도별로 전년 대비 등급의 상승, 유지, 하락으로 분석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수와 등급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3) 지표체계

-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

[표 1] 지역성평등지수 영역, 분야, 세부지표 개요

영역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②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			③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세부지표	3개	4개	2개	2개	3개	2개	4개	3개

2. 지역성평등지수로 본 충북 성평등 수준¹⁾

1) 충북의 성평등 종합순위 및 영역별 성평등 추이

- 2020년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성평등지수 등급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13위로 중하위권을 차지. 2018년 중상위권으로 향상된 뒤 2020년 중하위권으로 다시 하락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2020년 11순위로 전년 대비 1순위 하락
-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전년 대비 4순위 하락한 16순위
-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 : 2019년 4순위까지 꾸준히 상승, 2020년 점수 소폭 하락으로 7순위

[표 2] 충북의 영역별 성평등 점수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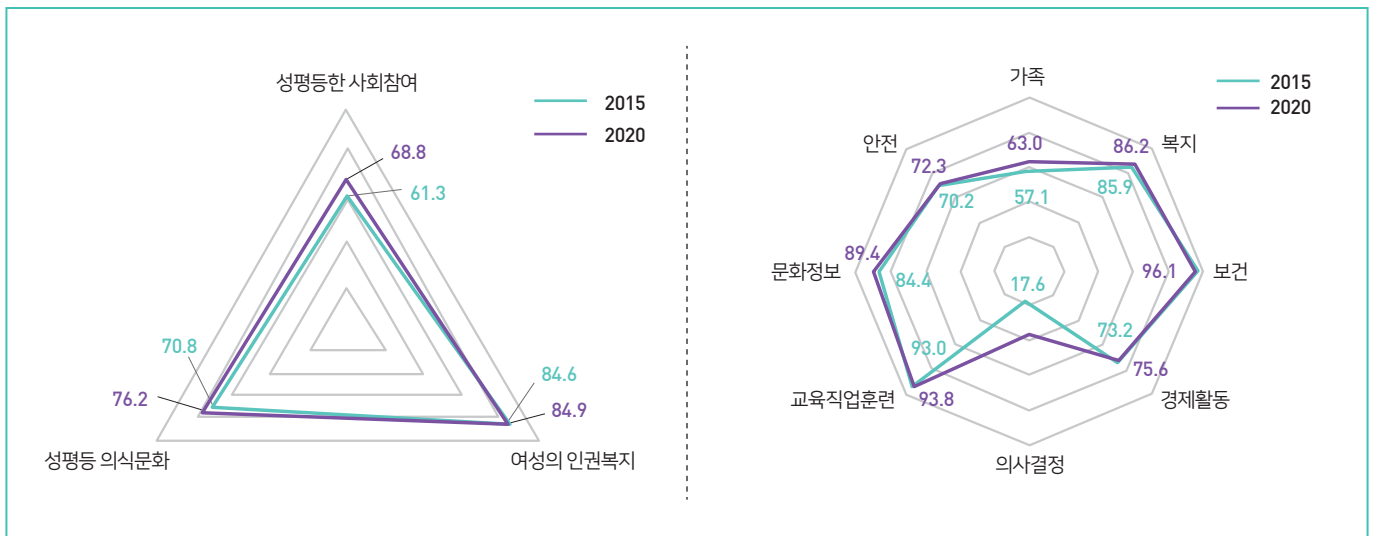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5	중하위권	61.3	11	84.6	10	70.8	12
2016	중하위권	64.5	9	83.3	14	71.2	12
2017	중하위권	66.0	9	85.0	11	72.6	11

1)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12월에 발간한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충청북도 내용을 발췌 요약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 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8	중상위권	69.4	9	86.4	7	74.7	7
2019	중상위권	69.6	10	85.4	12	76.9	4
2020	중하위권	68.8	11	84.9	10	76.2	7
2019 대비 증감	1단계 하락	-0.8	-1	-0.5	-4	-0.7	-3
2015 대비 증감	동일	7.5	0	0.3	-6	5.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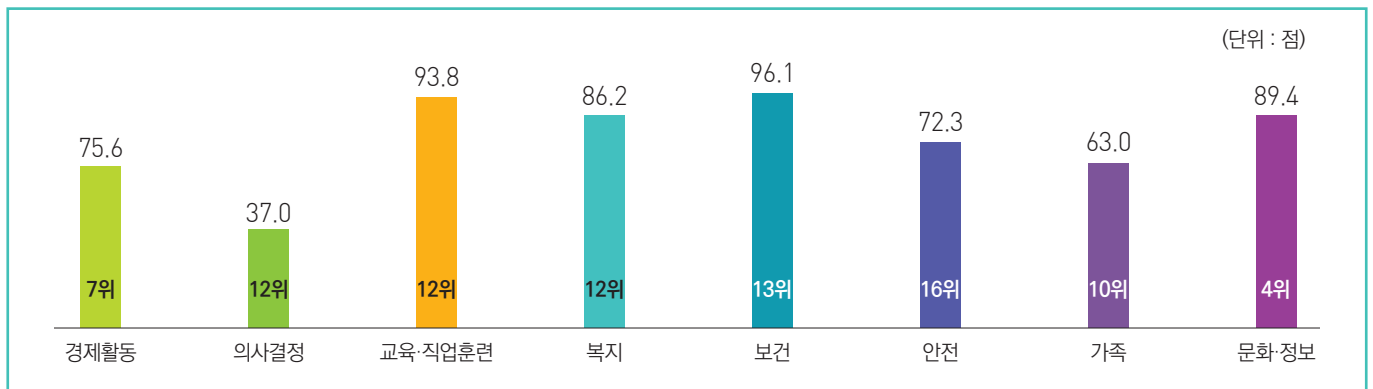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북도의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충북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 2020년 8개 분야의 성평등 점수와 순위

[그림 2] 충북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2020년)



3) 충북의 분야 및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

- **경제활동 분야**: 매년 하락하여 2020년 7순위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등락을 반복하다 2020년 3순위
 - 성별임금격차: 2018년 3순위에서 2019년 12순위로 급락, 2020년 13순위
 -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2016년 이후 상승 추이, 2019년 1순위에서 2020년 8순위로 크게 하락

[표3]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분야	73.2	3	74.4	3	74.8	3	75.5	4	75.7	5	75.6	7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9.0	3	81.5	2	78.6	4	75.8	10	78.7	5	80.5	3
성별 임금격차	61.5	5	62.8	1	64.4	1	64.7	3	61.9	12	62.0	13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9.0	4	78.8	9	81.4	5	86.1	3	86.5	1	84.4	8

- **의사결정 분야**: 2020년 12순위, 전년 대비 2순위 하락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순위 변동 없음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관리자 비율 성비: 2019년 31.9점(5순위)에서 2020년 20.6점(14순위)으로 큰 폭 하락. 의사결정분야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전년 대비 소폭 상승

[표4]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의사결정 분야	17.6	12	26.0	10	29.9	10	39.2	8	39.5	10	37.0	1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0.7	11	20.8	11	20.9	11	26.2	11	26.4	11	26.5	1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1.0	10	23.6	10	26.8	10	29.3	10	31.5	11	30.4	10
관리자 비율 성비	11.2	14	8.4	15	15.7	13	38.8	1	31.9	5	20.6	14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45.1	7	51.1	7	56.4	8	62.7	8	68.3	7	70.7	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점수는 소폭 상승하나 순위는 하락 추세, 시 도 간 점수격차가 적어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12순위)에 위치
 - 평균 교육연수 성비: 2020년 87.5점으로 매년 소폭 상승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2015년 이후 100점으로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

[표5] 교육 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교육 직업훈련 분야	93.0	10	93.2	11	93.3	11	93.5	11	93.6	12	93.8	12
평균 교육년수 성비	86.1	10	86.4	11	86.7	11	86.9	11	87.2	12	87.5	1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분야** : 2020년 86.2점으로 12순위. 2019년 대비 1순위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하락 추세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 중상위권을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 점수 하락. 복지 분야 순위 하락의 원인

[표6] 복지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복지 분야	85.9	7	87.7	8	89.0	8	87.2	12	86.6	13	86.2	12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1.4	9	83.7	8	85.4	8	86.5	9	87.4	10	89.7	9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0.5	6	91.8	5	92.7	6	87.8	9	85.7	11	82.7	10

- **보건 분야** : 2020년 13순위로 하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하기 때문에 성평등 점수가 90점 이상이지만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 전년도와 동일한 12순위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전년도와 동일한 12순위
 -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지표로 저년도 15순위에서 2순위 상승한 13순위

[표7] 보건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보건 분야	97.6	9	97.1	9	96.8	13	97.7	10	95.8	14	96.1	13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96.6	10	96.9	9	96.7	12	97.0	11	96.5	12	96.6	12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7	9	97.4	8	97.3	8	97.2	11	95.2	12	94.7	12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9.4	11	97.0	12	96.3	15	98.8	9	95.7	15	96.9	13

- **안전 분야**: 2019년 9순위에서 2020년 16순위로 크게 하락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2018년 5순위 기록 이외에 중하위권과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격차: 그 동안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다가 2020년 11순위로 하락. 2020년 안전 분야 순위 대폭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표8] 안전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안전 분야	70.2	9	65.0	14	69.2	10	74.4	6	73.9	9	72.3	1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9.2	14	52.5	16	63.9	11	73.1	5	70.3	13	68.4	15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격차	81.2	2	77.4	8	74.5	10	75.8	8	77.5	7	76.3	11

- **가족 분야**: 매년 등락을 반복, 변동이 큰 분야로 2020년 10순위
 - 가사노동시간 성비: 큰 변동 없이 2020년 10순위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2020년 7순위
 -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많은 지역이 100점을 달성하는 지표로 2020년 92.7점으로 높은 점수지만 14순위에 위치
 - 육아휴직자 성비: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순위 하락한 9순위

[표9] 가족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 분야	57.1	6	56.4	14	59.1	8	59.7	12	63.6	7	63.0	10
가사노동시간 성비	27.2	10	28.5	10	29.8	9	31.1	8	32.5	9	33.9	10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5.6	8	92.4	13	93.5	7	94.6	6	94.4	5	94.3	7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100.0	1	97.7	10	100.0	1	92.1	15	100.0	1	92.7	14
육아휴직자 성비	5.6	10	7.0	13	13.0	9	20.9	9	27.4	8	31.2	9

- **문화·정보 분야**: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 2020년 4순위로 상위권
 - 여가시간 성비: 매년 점수와 순위가 하락
 - 여가 만족도 성비: 2015년 14순위에서 2019년 완전 성평등한 수준을 달성한 후 2020년까지 2년 연속 1순위 기록
 - 인터넷 이용률 성비: 2019년 이후 상위권 진입, 2020년 3순위

[표10]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점수와 순위

(단위 : 점, 순위)

분야 및 세부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문화·정보 분야	84.4	11	86.0	9	86.2	10	89.6	4	90.2	3	89.4	4
여가시간 성비	81.5	1	79.5	1	77.3	2	75.1	4	72.8	8	70.3	9
여가 만족도 성비	82.6	14	84.3	15	86.2	12	97.4	6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2	13	94.1	9	95.1	8	96.3	4	97.8	4	97.9	3

4)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종합분석

- 2020년 성평등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하락
- 분야별로 보면 2020년 상위 분야는 문화 정보 분야이고, 하위 분야는 안전 분야가 차지. 향후 신규 지표체계에서는 두 분야가 동시에 제외되므로 충북 지역성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표별로 보면 상위권 지표는 5개(경제활동참가율,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권 지표는 3개(관리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로 나타남
-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 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로 이 중 가사노동시간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지표는 성평등 점수가 낮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는 지표이므로 지속 관리가 필요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거나 낮은 점수에 머물러 있어 개선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지표가 10개로 나타남. 이 중 지표 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4개 지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
 - 개편안에 반영되는 지표(4개) : 상용근로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 개편안에서 삭제되는 지표(6개) :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표11] 2020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종합분석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2018년 중상위권 → 2019년 중상위권 → 2020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1~5위)	문화 정보
		하위(14~17위)	안전
	지표	상위(1~5위)	경제활동참가율,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하위(14~17위)		관리자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상용근로자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등 10개 지표에서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1단계 하락. 특히 관리자 비율이 전년대비 10점 이상 하락하여 순위 또한 5위에서 14위로 하락.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가 모두 하락	

구분	내용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30~50점 지표(3개)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30점 미만 지표(2개)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10개) : 상용근로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여가시간

3.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과 신규 지표²⁾

1) 개편 취지 및 개요

- 여성가족부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1년 12월 지수 개편안을 확정 발표
-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정의를 반영하여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라는 3대 목표를 설정
-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에서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로 변경

현행		개편(안)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	
영역	분야	목표	영역
사회참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훈련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인권·복지	복지, 보건, 안전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소득, 교육, 건강
의식·문화	가족, 문화 정보	평등한 관계	돌봄, 젠더의식

2)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기존 8개 분야 중 경제와 복지 분야는 고용과 소득 영역으로, 가족 분야는 돌봄 영역으로 개편하고 성평등 의식을 신규 영역으로 설정
- 기존 23개 세부지표 중 12개 삭제, 9개 신규로 추가되는 등 변화 예고
 - 성차별 채용, 유리천장, 성별업종분리 등 고용 직장에서 성차별 문제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동등한 접근이라는 목표로 고용과 소득 관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 여성비율 등의 신규 지표 보완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점검 지표로 가사노동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 등의 기존 지표 유지
 - 지자체 위촉위원 여성비율, 셋째아 출생, 인터넷 이용률 등은 목표 달성 또는 성별격차 감소를 반영해 기존 지표 삭제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공적연금 수급률로 지표 변경

2)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과 관련된 내부자료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아직 지역성평등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발표하기 전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표 12]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의 목표, 영역, 세부지표

영역	분야	현행 세부 지표(23개)	목표	영역(가중치)	개편안 세부 지표(20개)			
사회 참여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0.143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관리자 성비			
		[삭제]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신규] 초중고 교장 교감 비율			
	경제활동	[삭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 (0.1761)	상용근로자	[신규]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신규] 노동시장 직종분리		
		상용근로자				[신규] 경력단절여성 비율		
		교육·직업 훈련				평균 교육연수	[신규] 경력단절여성 비율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소득 (0.1635)	임금격차
					[삭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삭제] 건강관련 삶의 질			교육 (0.0809)	평균 교육 연수				
보건		[삭제] 건강검진 수검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신규]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 (0.0854)	[신규] 기대수명				
		[삭제] 전반적인 안전의식 성비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안전		[삭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돌봄 (0.1683)	가사노동 시간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참여성비	육아휴직 사용				
의식·문화		가족	[삭제]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평등한 관계	젠더의식 (0.1824)			[신규] 성역할 고정관념
			[삭제]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신규]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삭제] 여가시간 성비		문화·정보			[삭제] 여가만족도 성비		
	[삭제] 여가만족도 성비		[삭제] 인터넷 이용률					

3)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으로 예측한 충북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 9개 신규 지표 중 통계 원자료가 발표된 8개 신규 지표를 감안해 앞으로 발표될 충북의 성평등 수준을 예측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의사결정 영역의 기존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던 '지자체 위원회 여성위원 성비'가 삭제되고 신규 지표로 '초중고 교장 교감 비율'이 포함되어 해당 영역의 점수와 순위 하락이 예상
 - 지난 10년간 충북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성비는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 하지만 중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짐
 - 2020년 기준, 충북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7개 시도 중 10위를 차지함. 관리자 성비는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함. 특히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8년 전국 1위(38.8점)와 2019년 전국 5위(31.9점)에서 2020년 전국 14위(20.6점)로 급등락하고 있어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
- 고용 및 소득 영역은 경력단절 여성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현황, 고용률 등의 신규 지표에서 상위권 또는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력단절 여성 비율, 고용률 등의 신규 지표에서 상위권 이상에 위치하므로 고용 및 소득 영역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표 설정과 관리가 필요

- 성별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성비와 같은 기존 지표에서 총복은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교육 및 건강 영역은 전국 시도 성평등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높고, 시도간 격차가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음
 -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등급으로 평가받는가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음. 완전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자체적인 목표설정 및 관리 필요
- 돌봄 영역은 기존 지표 4개 중 2개는 삭제하고 2개는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순위나 점수에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지난 6년간 총복은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두 지표에서 평균 9~10순위에 위치. 생활습관과 가치관 등에 관련된 지표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시민의성평등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정책 투입이 요구되는 지표
- 젠더의식 영역은 신규 지표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는 통계 원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움

4.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1)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의 특징과 지표 관리 방향

- 지역성평등지수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개편(안)까지 일관되게 성 격차와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라는 특징이 있음. 또한 성별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완전한 성평등 (완전 불평등 0, 완전 성평등 100, 여성비율 50% 이상 완전평등 상태로 간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 성과 측정을 지향하고 있음
-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으로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지역별 종합지수의 등급과 순위가 도출됨. 지역별 등급과 순위 공개는 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목적인 지역별 성불평등한 분야와 지표의 개선이라는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당해 연도 지역의 성평등 등급과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중장기 지표 관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가 필요

2) 성평등정책 추진부서의 지역성평등지표 관리 방안

-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의 20개 지표 중 성평등정책 추진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표 1개를 제외한 19개 지표는 직접 중점 관리 지표와 간접 협력 관리 지표로 나누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

성평등 정책부서	지표수	지표명
관리 곤란 지표	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직접 중점 지표	10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관리자 비율 / 고용률 / 경력단절 여성 비율 / 주관적 건강상태 / 정신건강 / 가사노동 시간 / 육아휴직자 / 성역할 고정관념 /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간접 협력 지표	9	초중고 교장 교감 비율 / 평균 교육 연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상용근로자 비율 / 노동시장 직종 분리 / 임금격차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공적연금수급자 비율 / 기대수명

3)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목표 설정 및 관리하는 방안

- 2023년 진행 예정인 <충북 양성평등 기본계획(2024-2028)> 수립, 충북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2023-2025) 등 여성·가족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도정의 주요정책계획과 연계하여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 관리하는 방안

4) 지역 성평등 지수의 현실방영도 제고 방안

- 지역의 성평등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성평등 현황 관련 사회조사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참고문헌

- 주재선·김영란·이진숙·박송이. 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202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2021). KOSIS.
- 질병관리본부.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2021). KOSIS.
- -----. 생활시간조사(2019). KOSIS.
- -----. 장래인구추계(2020-2050). KOSIS.
- -----. 지역별고용조사(2017-2021). KOSIS.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기타자료]

- 여성가족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2.9.6.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심의' (2022.2.9. 보도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도 지역성평등지수' 설명회(2022.9.15. 설명회 자료)

CBWF 이슈페이퍼 2022년 3호(제11호) 2022. 08.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노동·가족돌봄

CBWF 이슈페이퍼 2022년 2호(제10호) 2022. 05.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의 노동위기와 과제

CBWF 이슈페이퍼 2022년 1호(제09호) 2022. 02.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